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이며 말씀”

국립박물관 소장 불사리 82과
종단 이운... 조계사에서 고불식
친견법회 후 출토지 사찰 봉안

“불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이자, 말씀이며, 그 정신을 잇는 불교신앙의 중심으로서 예경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사리 이운 및 고불식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법회는 그동안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불사리 82과를 ‘장기 대여’ 형식으로 본래 자리로 이운해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안된 법회는 불교중앙박물관 앞을 출발한 불사리(佛舍利) 이운 행렬이 조계사 일주문을 거쳐 대웅전 불단에 모셔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문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이운한 불사리는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전례 받아 불단에 봉정했다.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합창으로 예를 올리며 환희심으로 사리들을 맞이했다.

지현스님은 고불문에서 “박물관 사고에 보관된 유물로서의 사리가 아닌 예경과 신앙을 증명으로 불교의 성보로 법당에 신앙의 귀의처로 모시고자 대한불교총본산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아뢰옵니다”라고 사리 이운을 부처님께 알렸다.

부처님께 귀환을 고한 사리는 모두 82과이다. 정양 도립사지 삼층석탑 사리 1과, 보령 성주사지 출토 사리 17과, 전 남원사지 출토사리 4과, 광주 서오층석탑 사리 56과, 순천 매곡동 석탑사리 4과 등



지난 12일 불교중앙박물관을 출발해 일주문을 거쳐 조계사 대웅전 앞 불단에 모셔진 불사리. 무사히 이운을 마친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합창으로 예를 올렸다.

이다. 총무원은 2016년 5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모셔진 사리의 반환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요청하고, 같은 해 7월 공문을 통해 정식 요구했다. 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사리의 사찰이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40과, 2018년 5월 7과, 2019년 82과를 종단을 통해 해당 사찰 등에 봉안하게 됐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축사를 통해 “사리는 예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계종에 봉안했을 때 더 의미가 깊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공간인 조계종에서 잘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리를 이운 받아 봉안하는 사찰을 대표해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은 “진심을 다해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와 평등,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부루나존자의 후예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식을 마무리하면서 불교중앙박물관

관 홍보대사인 이원종 영화배우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발원문을 낭독했다. “신앙의 귀의처로 모신 불사리로 인해 모두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쉽게 정진하겠습니다.”

한편 11월18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친견 의식을 진행한 사리들은 본래 출토지와 가까운 사찰의 석탑이나 불상에 봉안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문 걸어 잠근 상월선원 한국불교 새 역사 쓴다

■ 기해년 동안거 들어가던 날

“스님 건강하세요.” “정진 잘해주

세요.” 기해년 동안거 결제일인 지난 11일 불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정진으로 수행하고 생활하는 위례 상월선원이 결제에 들어갔다.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성곡스님, 무연스님, 호산스님, 재현스님, 심우스님, 진각스님, 도립스님, 인산스님 등 9명이 선원 앞에 섰다.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큰 목소리로 9명 스님들을 응원했다. 부처님 고행을 떠올리게 할 만큼 엄한 정진을 지켜가다 혹시 건강이라도 상할까 하는 염려도 담겨 있었다. 스님 한 명 한 명 선원 안으로 사라지고, 총도감 해일스님이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순간 위례 상월선원의 동안거 대장정이 시작됐다.

엄격한 정진이 알려지면서 상월선원은 한국불교 고행의 대명사가 됐다. 비닐로 덮인 선방에서 난방도 하지 않은 채 스님들은 묵언하며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아침저녁 공양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수행에 할애한다. 공양은 오전11시 들어오는 한 끼 도시락이 전부다. 겨우내 입는 옷도 한 벌 뿐이다. 양치만 할 수 있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그래서 스님들 짐도 단출하다. 등이 가려울 때 유용할 효자손과 잠빔과 나무빗, 목언이 적힌 목걸이와 죽비가 공용으로 지급되고, 평소 복용하던 약 정도가 전부다.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날 수 없다. 퇴방하면 종단의 적을 내려놓겠다는 굳은 의지로 제적원까지 제출한 스님들은 향상심을 불태웠다.

○ “몸 으스러져도 괜찮다” 3개월간 안락함과 편리함을 모두 내려놓고 눈과 입, 귀를 닫고 침잠하며 화두를 들 9명 스님들 얼굴은 입재를 앞둔 순간에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진 대중 가운데 최고령으로 알려진 성곡스님은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괜찮다”며 인자하게 웃어줬다. 또 진각스님은 “이 땅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다며 몸이 으스러져도 좋다는 각오로 정진하



철망 사이로 자물쇠로 굳게 잠긴 상월선원 모습이 보인다. 김형주 기자

겠다”고 말했다. 정진 대중 중 막내라고 소개한 인산스님은 “외로해주는 스님과 봉사해주는 불자들에게 고맙다”며 “시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결제를 앞둔 스님들에게 성원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부대중이 선원을 찾았다. 진제 종정예하는 상월선원 대중들을 위해 결제예배를 내리고 마음을 밝혀 만법의 주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법산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외에 불자 국회의원 모임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문했다. 강 의원은 “역사를 새로 쓰는 현장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사했다. 결제를 앞둔 자승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건강을 챙겨가며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고했던 오후 3시가 되자 상월선원 정진 대중 9명은 선방으로 향했다. 휴대폰을 해일스님에게 반납하며, 세간의 모든 소식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사부대중은 건강하고 원만하게 결제를 회향하길 기원했다.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을 등불을 삼아 재가자들은 이곳에서 흥겨운 야단법석을 연다. 불자들의 신명나는 기도가 이어지다보면, 한국 불교 신행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5면

하남=이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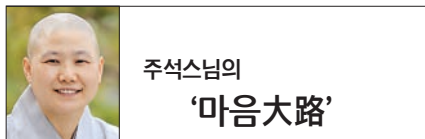
창간60주년 맞이 특별기획

미래준비 문화창달위원회
오대산 휴먼라이브러리 현장 2면



현봉스님 조계총림 방장 승좌
기해년 동안거 결제법회 현장 4면

● 불교,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세대 전담조직 필요하다 9면



주석스님의
‘마음大路’

진정한 복수

가난한 동생과 잘 사는 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먼 곳으로 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그곳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한 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은 아속하게도 아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돈을 벌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한 동생은 부유해지고 자기 재산만 지키려고 했던 웅졸한 형은 친구의 꼬임에 속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뀐 형이 아우에게 말을 한 필 빌려라 찾아갑니다. 아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의 형처럼 말을 빌려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한발 더 나아가서 말이 끄는 마차를 흔쾌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복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

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받은 안 좋았던 느낌대로 ‘반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처럼 그런 복수를 하겠거니 짐작하는 것과 반대로 더 큰 호의와 자비, 배려로 갚는 것이 진짜 복수일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양갈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망상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이를 갈고 복수를 꿈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간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삶의 진정한 복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제7대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선사 추대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중찰 조계총림 松廣寺

주지 자인 진화

사부대중 일동

